

광양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나서

광양읍권 2곳·중마동권 6곳 조성 도시숲, 열섬·미세먼지 완화 탁월 "도시민 살리는 생명의 숲 만들것"

광양시가 도시와 시민을 살리는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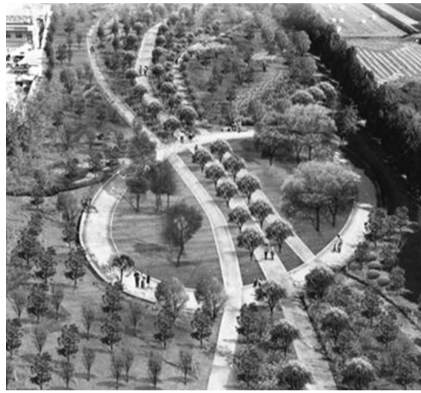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해 열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1차년도 '광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대상지는 열환경 분석 결과와 시민들의 이용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8개소로 광양읍권 2개소와 중마동권 6개소를 조성한다.

광양읍권은 디딤·확산숲과 연결숲 각 1개소를 조성한다. 디딤·확산숲은 전남도립미술관 주변으로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위치적으로 광양읍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며, 백운산과 서산에서 생성되는 찬 공기가 서천과 연결되면서 찬 공기를 도심권으로 빠르게 확산하는데 적지로 선정됐다.

연결숲은 동천 유류지 일원으로, 도시개발사업(목성지구)과 동천 사이에 발생하는 유류지(사면)를 성토해 선형의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찬 공기 이동통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열환경이 매우 취약한 중마동권은 연결숲 2개소와 디딤·확산숲 4개소로 총 6개소를 조성한다. 연결숲 대상지는 찬 공기 생성소인 가야산 공기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는 중마중앙로와 구봉산·성황천의 찬공기를 도심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광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예상도. 광양시 제공

성황천 주변 녹지공간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연결숲을 통해 유입된 찬 공기를 도심권으로 확산하고 소규모 찬 공기를 생성하기 위한 대면적 마동근린공원, 와우공원(2개소), 눈소공원, 마동생태공원

을 선정해 시민들이 쾌적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5개소(약 60억원)는 발주 완료됐으며 3개소는 용역 추진 중으로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산림의 차고 신선한 바람이 도심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도시와 시민을 살리는 생명의 숲이 되도록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도시숲은 기온을 3~7℃ 낮추고 습도를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대규모 도시숲은 미세먼지 25.6% 저감 및 초미세먼지 40.9%를 저감하며, 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를 2.5톤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방출해 대기정화기능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안영준 기자

찾아가는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구례군, 주민 대상 참여 확대

구례군은 지난 8일부터 찾아가는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평생학습 마을학교란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 스스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마을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22개 마을이 지정되어 마산면 냉천마을과 하사마을, 산동면 정산마을에서 운영되고 있고 다른 마을도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웃음치료, 요가, 노래교실, 도자기, 목공예 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멀리 가지 않고도 마을 내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주민들의 참여는 늘 전망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전통예법·판소리 체험' 운영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시는 오는 9월까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수오당에서 '전통 예법과 판소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전통 예법과 판소리 체험'은 전통문화와 우리 소리를 아끼고 사랑했던 한창기 선생의 뜻을 잇고자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사)낙안읍성판소리보존회가 진행하며 전통 예절과 다도, 참여자가 모두 함께 배우고 볼러보는 판소리 체험까지 참여형 프로그램 형태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061-749-88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가 오는 9월까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수오당에서 '전통 예법과 판소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순천시 제공

장흥군 '고향사랑기부' 물결 재경 장흥군향우 7명

장흥군은 최근 재경 장흥군향우회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오명준, 김정전 전 재경향우회장 백희선, 이대식, 김도훈, 이종대, 백향선 향우가 참석했다.

향우들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와 함께 장흥군 발전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장흥군 출신 김경협, 백혜련, 위성곤, 문진석, 김승남 국회의원이 함께 자리해 향우들을 격려하고, 고향사랑기부금제 협조를 다짐했다.

오명준 전 재경장흥군향우회장은 평소 고향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고 향우들의 친목과 화합에 힘써왔다. 장흥=김전환 기자

조승환, 광양시 홍보대사 위촉



광양시는 얼음 위 세계기록이 있는 맨발의 사나이로 조승환 씨를 광양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조승환 씨는 이날 시청에서 정인화 시장과 함께 위촉식을 갖고 2년간의 홍보대사 임기를 시작했다. 홍보대사는 문화·예술·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광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광양을 알리며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은 광양 출신으로 얼음 위에 맨발로 오랫동안 서 있는 세계기록 보유자이자, 국제환경 운동가이다.

오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얼음 위에서 맨발로 서 있기 자신의 신기록 경신을 위해 4시간25분에 44번째 도전에 나선다. 8월 베트남, 10월 중국, 11월 독일에서 세계 기록에 도전할 계획이다.

조승환 홍보대사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전 세계에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광양시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 스타기업 3개사 선정... 지역대표 기업 육성

남도꼬막·정희·에스씨에스 등

여수시가 관내 기술유망 중소기업 3개사를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역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선정된 스타기업은 △새꼬막살을 생산하는 남도꼬막(주) △스테인리스 물탱크 등을 생산하는 (주)정희 △고압/특수/대형/각종 밸브류를 수리하는 에스씨에스(주) 등 3개사다.

선정된 3개사는 스타기업 지정 현판수

여와 함께 3년간 (재)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시제품 제작과 탄소배출완화장치 등 공정개선 컨설팅, 마케팅 및 인지도지원 등 최대 9천만 원 상당의 기업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을 지원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스타기업 모집을 거쳐 5월 현장 및 대면평가를 통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억원 이상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기술시장성, 조직역량, 지원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스타기업 3개사를 선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관내 기업의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내 고용과 매출을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12년부터 산·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 36개 스타기업을 배출했다. 여수=이정기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일본~동남아 컨테이너 항로 유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일본, 동남아를 연결하는 신규 항로 서비스가 매주 1항차 운행을 시작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는 광양과 일본, 동남아 지역을 잇는 신규 컨테이너 항로서비스(KTH)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운영하는 동남아항 신규서비스는 주 1항차 서비스로 약 2000개의 화물을 싣는 규모의 선박 3척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배는 일본과 광양, 동남아 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한다.

신규 서비스에 투입된 에버 체스트호는 한국국제터미널(KIT)에 17일 첫 입

항했다. 상해 기항지로는 하카타(일본)-울산-부산-광양-청도(중국)-카오슁(대만)-타이페이(대만)-하이퐁(베트남)-카오슁-타이페이-하카타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올해 CMA-CGM GSX(Guam Saipan Express) 서비스와 흥아라인 BNX(Busan Ningbo Xpress)서비스 유치에 이어 또 다시 신규 서비스를 유치함으로써 광양항의 주당 컨테이너 정기서비스는 78항차로 확대됐다.

동남아 기항 서비스도 28.5항차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서비스 유치를 통해 일본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화주 및 동남아지역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화주들에게 더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2만 3000 TEU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현 사장은 "YGPA는 수출입 화주들의 편의를 위한 고객 최우선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이은 신규 서비스 개선을 통한 항로 연계성 강화와 안정적인 항로 서비스 제공으로 광양항 이용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천(天)개의 아이디어' 이벤트 순천시, 30일까지

순천시는 '만약 내가 순천 청년이라면? 청년을 위한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를 부제로 '천(天)개의 아이디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순천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기획됐다.

참여방법은 지난달 1일에 오픈한 순천청년통합플랫폼 '청년정책114'(www.suncheon.go.kr/youth/)의 '천(天)개의 아이디어' 게시판에 오는 30일까지 문화와 복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시는 내부평가를 통해 최우수 제안자 1명에게 20만원, 우수 제안자 1명에게 10만원, 가장 많은 아이디어 제안자 1명에게 10만원,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명에 1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7월 초 '청년정책114' 새소식에 게재 후 당첨자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년정책과(061-749-3233)로 문의하면 된다.

모집된 아이디어는 정책 선호도조사와 해당부서의 실행가능성 검토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거쳐 정책으로 반영된다. 순천=배서준 기자